

방탄소년단, 타임 선정 '인터넷서 영향력 있는 25인'...3년 연속

그룹 방탄소년단이 시사주간지 타임이 발표하는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3년 연속 선정됐다.

타임은 16일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 (The 25 Most Influential People on the Internet) 기사에서 방탄소년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영국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아리아나 그란데, 카디비 등 25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3년 연속 선정돼 세계적인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타임은 "한국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은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아는 그룹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수백만 명의 강한 팬덤인 아미 (ARMY)의 적극적인 온라인 콘텐츠 소비와 홍보 덕분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소셜 아티스트 차트 ('소셜 50')에서 2년 넘게 정상을 지키고, 더욱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또 타임은 방탄소년단이 1년 안에 '빌보드 200' 1



위를 달성한 3개 앨범을 발매했고,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 (MAP OF THE SOUL : PERSONA)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 뮤직비디오가 공개 24시간 동안 7천500만뷰를 기록하며 최근 성과를 소개했다. 방탄소년단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는 모바일 게임이 여러 국가 애플 앱스토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금발 소녀와 열애설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사진)가 열애설에 휩싸였다.

17일 연예 매체 TMZ는 톰 홀랜드와 여자 친구로 보이는 금발 여성이 함께 찍힌 파과라치 사진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함께 했던 젠다야 콜맨과 열애설이 불거졌던 톰 홀랜드에게 금발의 여자 친구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속 톰 홀랜드는 금발의 여성과 함께 맥주를 즐기며 눈을 마주치는가 하면, 여성이 톰 홀랜드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면서 돈독한 관계임을 짐작하게 했다.

TMZ 측은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 뮤직 페스티벌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다."며 "톰 홀랜드와 그의 여자친구가 블랙 아이드 피스와 로비 윌리엄스



의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는 목격담도 들었다. 두 사람은 꽤 낭만적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톰 홀랜드와 젠다야 콜맨의 열애설은 2017년 7월 '스파이더맨:홈 커밍' 개봉을 앞두고 불거졌다. 피플 등 복수의 매체들이 톰 홀랜드와 젠다야 콜맨이 단둘이 데이트를 했다고 보도한 것.

이에 젠다야 콜맨은 자신의 SNS에 "잠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우리(톰 홀랜드와)가 같이 휴가를 다녀왔다고 한 부분"이라며 "난 1년 동안 휴가를 다녀오지 못했다."고 열애설을 부인했다.

열애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톰 홀랜드와 젠다야 콜맨의 열애를 의심하지 않던 상황에서 톰 홀랜드의 사진은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는 반응이다.

엠마 스톤 '라라랜드' 감독과 재회



배우 엠마 스톤(31·사진)이 '라라랜드'의 감독 데이미언 셔젤이 연출하는 차기작 '바빌론' 출연을 결정했다.

'바빌론'은 1920년대를 배경으로 급변했던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산업을 그린 작품이다. 셔젤 감독만의 감각적인 묘사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엠마 스톤은 셔젤 감독의 전작 '라라랜드' (2016)를 통해 '인생 연기'를 펼쳤다는 평을 받았다. 엠마 스톤은 이 작품을 통해 제89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라라랜드'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 서로의 무대를 완성해가는 배우 지망생과 재즈 피아니스트를 통해 꿈을 좇는 청춘의 열정과 사랑을 그린 뮤직 로맨스다. 엠마 스톤은 '미아' 역을 맡아 '세바스천' 역의 라이언 고슬링(39)과 호흡을 맞췄다.

엠마 스톤은 2007년 코미디 영화 '슈퍼배드'로 영화계에 데뷔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2009년 미국 좀비영화 사상 최고 흥행작인 '좀비랜드'에 출연했다. 2010년 코미디 영화 '이지 A'로 첫 주연을 맡았다. '크레이지, 스투피드, 러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등에 출연했다.

1273호 숫자퍼즐 정답

5	3	9	7	4	6	2	8	1
6	1	7	5	8	2	9	4	3
8	4	2	3	9	1	6	5	7
7	8	4	1	5	9	3	6	2
9	5	3	2	6	7	4	1	8
1	2	6	8	3	4	7	9	5
2	6	5	9	1	3	8	7	4
3	9	1	4	7	8	5	2	6
4	7	8	6	2	5	1	3	9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의사보다는 의류사업으로 성공할 팔자(八字)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대학생 아들을 둔 중년 여인과 아들의 진로 문제로 상담을 했다. 먼저 필자가 아들의 사주를 보면서 건넌 이야기는 "아드님이 타고난 팔자가 그래도 글과 학문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지닌 전문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만 무엇인가 설계하거나 디자인 하는 일에 소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화려하게 꾸미거나 장식하는 일도 재능이 있는 팔자가 되는데 지금 무슨 전공을 공부하고 있나요?"라고 물어보니 답하는 말이 "원래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휴학을 하고 집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넌 말은 "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으로 의학(醫學) 분야도 가능하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의사보다는 디자인 계통이나 의류를 다루는 분야에 더 큰 소질을 더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을 하니가 모친이 놀라는 표정으로 하는 말이 "원래 이 애가 어릴 때부터 패션에 무척 관심이 많아서 맨날 옷 그림을 그리면서 놀았어요. 원래 패션 분야에는 확실히 감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 아빠가 억지로 밀어붙여서 의대를 공부를 시작하긴 했는데 지금은 후회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다시 건넌 이야기는 "누구든지 자기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팔자(

八字)에 있는 남다른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손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드님은 특히 화려한 패션 의류 분야와 인연이 많고, 아마도 나중에 배우자와 함께 의류(衣類) 사업을 하게 될 것이며 훗날 반드시 부자(富者)로 성공하게 됩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다. 누구든지 타고난 팔자의 특징을 잘 활용하면 남들보다 손쉽게 성공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자기가 타고나지 못한 분야에 뜻을 둔다면 인생살이가 고달파지는 법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